

보고 일시	2023. 1. 11.(수) 12:00		
담당 부서	지방자치균형발전실 주소정책과	책임자	과장 송정아 (044-205-3551)
		담당자	사무관 신윤성 (044-205-3555)

전국 주소담당자 한자리에 모여 주소정책 발전논의

- 1월12일부터 1박 2일간, 2023년 주소정책 중점 추진과제 및 우수사례 공유 -

- 주소를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나라를 만들고, 더 나아가 주소를 자원으로 미래산업 창출을 고민하기 위해, 중앙·지자체·전문기관의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자리가 마련된다.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1월 12일(목)부터 1월 13일(금)까지 1박 2일간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전국 17개 시·도 지방자치단체와 전문기관(한국국토정보공사, 주소지능정보전문가포럼, 주소기반산업협회) 등 전국의 주소업무 담당자 3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3년 주소정책 공동연수(워크숍)’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번 공동연수(워크숍)에서는 지난해 마련한 제1차 주소정보 활용 기본계획('22.~'26.)에 따른 2023년 주소정책 중점 추진과제와 방안 등이 공유된다.
 - 또한, 지난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한 우수시책 사례* 발표 5건과 특별강연**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 * 서울 강북, 인천 연수, 대구 달성, 인천 연수, 충남 천안
 - ** 안병민 열린비즈랩 대표, 미래사회 예측과 주소정책의 역할
- 이 자리에서 행안부는 ▲주소정책 추진동력 확보, ▲주소참조체계 입체화, ▲촉촉한 국가주소정보 확충, ▲주소지능정보 생태계 조성, ▲디지털주소 정보 플랫폼 구축, ▲주소기반 산업창출 과제를 발표하고 올해 주소정책 전망(비전) 등을 제시한다.

□ 특히, 국정과제 디지털플랫폼정부 선도과제인 ‘스마트 주소로 인공지능(AI)로봇 배송 등 서비스 혁신*’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국민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혁신을 단계적으로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관련 기관과 지자체의 협조를 당부할 예정이다.

* ▲입체적인 스마트 주소 구축 ▲분산된 주소시스템과 데이터 통합 ▲디지털 주소정보 플랫폼 구축 ▲주소정보 공개 ▲주소정보를 통한 새로운 서비스 모델 개발·보급 등

□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한 우수 주소정책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서 대구 달성군에서 추진한 ‘도로명유래 만화책자 제작 배부’를 통한 홍보사례와 충남 천안시에서 추진한 ‘소방·경찰 시스템에서 운영하는 자체시스템에 기초번호 데이터베이스(DB) 반영’ 시책 등 5개의 우수사례 발표도 진행된다.

□ 아울러 중앙·지방의 주소정책 공유 뿐만아니라, 올해부터 주소정보의 활용 관련 산업의 진흥을 지원하기 위해 처음 설치되는 한국국토정보공사 주소정보활용지원센터의 업무소개 및 향후 계획 등 주소정책 유관 전문 기관의 2023년도 업무계획도 공유하여, 보다 체계적인 주소정책 추진 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 한편, 이 자리에서는 2022년 주소기반 드론·자율주행로봇 배송, 실내 내비게이션 등 주소정보 산업 지원 시범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한 자치단체와 주소정보시설의 유지관리 등 주소업무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에 대한 시상식도 함께 개최될 예정이다.

※ (포상규모) 총 67점(대통령 표창 4, 국무총리 표창 6, 장관 표창 57)

< 표창수여 자치단체 주요공적 >

- (세종시^{대표}) 실내·외 주차장에서 주소기반의 자율주행차 주차 실증
- (충청북도^{대표}) 국가지점번호 일제조사(550개) 및 추가 확충(141개)을 통한 산악 등 위치찾기 개선
- (인천 서구^{대표}) 조명형 도로명판(22개소) 설치로 밤길 안전 확보 및 수도권 매립지 안내체계 개선
- (대구 달성군^{대표}) 도로명 유래 만화책자 제작을 통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주소정책 홍보
- (충남 천안시^{대표}) 기초번호를 활용한 비거주지역 신속한 구조·구급 활동체계 구축

- 최훈 행정안전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생활의 근거지로서 집 찾기에 사용하던 주소가 4차 산업혁명시대에는 사람과 사람, 사람과 로봇 간의 ‘위치소통의 핵심수단’으로 역할이 증대됐다”라며, “주소정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역량을 모아 나갈 것”이라며 협력을 당부했다.



□ 개최개요

- (일시·장소) '23.1.12.(목)~1.13.(금), 세종컨벤션센터
- (참석대상) 총 300여명(행안부, 지자체, 전문기관, 표창 수상자 등)
- (행사주제) 2022년 주소정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에 대한 표창 전수 및 2023년 주소정책 업무추진 방향 공유

□ 주요 내용**① ('22년 주소정책 성과 보고) 행안부**

- 국정과제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선도과제(스마트주소체계) 채택
- 「제1차 주소정보 활용기본계획('22~'26)」 수립
- 주소산업진흥 지원을 위한 「주소정보활용지원센터」 설치
- 주소기반의 드론배송(경기 가평) 상용화, 자율주행로봇 배송(부산) 및 지하주차장 자율주행차 주차(세종), 실내 네이게이션(대전) 시연 등

② ('22년 주소정책 업무유공 시상) 총 67점

※ 대표(세종시 등 4), 국표(충청북도 등 6), 장관표창(서울 강북 등 57)

③ (특별강연) 열린비즈랩 대표 안병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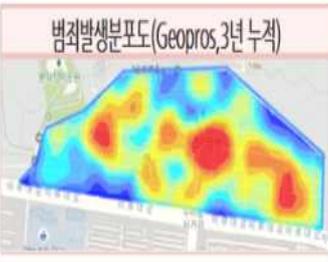
- 미래 사회의 예측과 주소정책의 역할

④ ('22년 우수 지자체 사례 공유) 지자체 우수사례 5편(참고2) 발표**⑤ ('23년 주소정책 업무계획 발표) 행안부(참고3)**

- 주소참조체계 입체화 및 촘촘한 국가주소정보 확충
- 주소지능정보 생태계 조성 및 디지털 주소정보 플랫폼 구축
- 주소정책 추진동력 확보, 주소기반 산업창출 등

참고 2

지자체 주소업무 우수시책

<p>서울 강북구</p>	<p style="text-align: center;">건물번호판 일제정비 예산확보 및 디자인 변경</p>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div style="margin-left: 20px;"> <p>노후된 건물번호판을 교체할 때, 지자체의 특성 및 변화된 디자인 요소 등을 반영한 건물번호판 제작·교부 ※ (주소정보시설규칙 제20조제2항) 주소정보위원회 심의를 거쳐 표준형 건물번호판과 다르게 제작·교부 가능</p> </div> </div>
<p>인천 연수구</p>	<p style="text-align: center;">반짝이는 주소데이터, 어제보다 안전한 연수안심길</p>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div style="margin-left: 20p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소정보와 행정 데이터를 융·복합하여 데이터 시각화 및 최적지 선정 등에 활용 ▶ 유관기관 생활안전담당 부서와 협업(연수경찰서, 공단소방서)하여 순찰 및 긴급출동에 주소정보 활용 </div> </div>
<p>대구 달성군</p>	<p style="text-align: center;">도로명 유래 만화책자 제작</p>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div style="margin-left: 20px;"> <p>코로나-19상황을 고려한 비대면 홍보의 일환으로 달성군에서 사용되고 있는 도로명에 대한 유래와 특징을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만화 책자를 통해 재미있게 소개하여 도로명주소 홍보 및 교육에 활용</p> </div> </div>
<p>강원 횡성군</p>	<p style="text-align: center;">국가지점번호 스마트 신고시스템 안내판 구축</p>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div style="margin-left: 20px;"> <p>긴급상황 시 신속하게 사용하도록 스마트폰의 NFC 및 QR태그를 활용하여 위치정보를 정확·신속하게 구조기관에 전송하는 안내판 구축</p> </div> </div>
<p>충남 천안시</p>	<p style="text-align: center;">기초번호 활용 위치안내서비스 협약</p>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div style="margin-left: 20px;"> <p>소방·경찰 시스템에서 운영하는 자체 시스템에 기초번호 DB를 반영하여 도로번, 공지 등 비거주지역에서 안전사고 발생시 신속한 구조·구급 활동 체계 구축</p> </div> </div>

참고 3

2023년 주소정책 목표 및 중점 추진 과제

비전

주소로 안전한 나라, 주소로 편리한 나라, 주소가 자원인 나라

언제, 어디서, 누구나 위치
표현이 가능한 촘촘한 주소

사람과 지역 모두가 균형있게
사용하는 고른 주소 분포

생활, 행정, 산업을 혁신하는
주소기반 D.N.A. 생태계

1 주소정책 추진 동력 확보

① 법령 개정안 마련	現 산업 지원 근거 포괄적 → '23년 산업 지원육성 관련 사항 구체화
② 거버넌스 구축	주소정책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한 협력 체계 구축 * 주소정보 활용지원 전문인력 확보 및 활용기관 협의회 구성
③ 활용 기술 개발	주소지능정보 융·복합 기술개발 R&D 추진 * 과기부 다부처 공동기획 연구 과제로 추진
④ 대국민 홍보	동영상 중심의 홍보 콘텐츠 제작, 국민참여 유도

2 주소참조체계 입체화

① 지상도로 확대	농로(62,653km), 산책로(429km), 항·포구에 도로명 부여 * 항·포구는 시범사업을 통해 세부기준 마련 후 확산
② 입체도로 구축 (고가·지하도로 등)	現 637개 → '23년 목표 1,274개 → '25년까지 2,560개 구축 * (주요 내용) DB 구축, 주소부여, 안내시설 설치, 활용 지원
③ 내부도로 구축 (철도역사 등)	現 222개 → '23년 목표 442개 → '25년까지 1,199개 구축 * (주요 내용) DB 구축, 협업체계 구축, 활용 지원
④ 실내 이동경로 구축 (아파트)	現 65,204개 → '23년 목표 145,570개 → '25년까지 485,165개 구축 * (주요 내용) DB 구축, 데이터 정비, 활용 지원

3 촘촘한 국가주소정보 확충

① 사물주소 확대	現 14종 → '23년 19종(5종 추가*) * 공중전화, 우체통, 전동휠체어 급속충전기, 자전거거치대, 야외행사장
② 기초번호 확산	도로변 시설물에 기초번호 표기 확대(목표: 63,000개) 기초번호 활용 긴급신고 체계 구축
③ 국가지점번호 관리	국가지점번호판 일제조사(13,800개) 및 설치 확대

④ 주소지능정보 생태계 조성

① 이동지능정보	(드론) 드론배달점 50점 설치 및 상용화 지원 (자율주행로봇) 실내-실외 시범사업(2곳), 주소정보 인프라 구축 (자율주행차 주차) 실증 및 표준 품셈 마련
② 장소지능정보	(출입구 정보) 건물(47,160동)의 모든 출입구 정보 구축 (별칭 정보) 별칭 정보를 연계한 통합 DB 구축
③ 데이터지능정보	공개표준데이터 10종*에 대한 지식그래프 연계 추진 * 무인교통단속카메라, CCTV, 어린이보호구역, 공중화장실 등

⑤ 디지털 주소정보 플랫폼 구축

① 주소정보관리시스템 (KAIS) 유지관리	주소 DB 관리, 입체주소정보 운영, 주소정보기본도 갱신 지원 등																
② 차세대 시스템 구축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23년(1단계)</th> <th>'24년(2단계)</th> <th>'25년(3단계)</th> </tr> </thead> <tbody> <tr> <td>SW 개발</td> <td>국가주소정보시스템(1차)</td> <td>국가주소정보시스템(2차) 주소지능정보 및 광장(1차)</td> <td>주소지능정보 및 광장(1차) 스마트 KAIS 구축</td> </tr> <tr> <td>데이터</td> <td>데이터 통합(1차)</td> <td>데이터 통합(2차)</td> <td>데이터 통합(3차)</td> </tr> <tr> <td>인프라</td> <td>클라우드 도입(1차)</td> <td>클라우드 도입(2차)</td> <td>클라우드 도입(3차) 재해복구</td> </tr> </tbody> </table>	구분	'23년(1단계)	'24년(2단계)	'25년(3단계)	SW 개발	국가주소정보시스템(1차)	국가주소정보시스템(2차) 주소지능정보 및 광장(1차)	주소지능정보 및 광장(1차) 스마트 KAIS 구축	데이터	데이터 통합(1차)	데이터 통합(2차)	데이터 통합(3차)	인프라	클라우드 도입(1차)	클라우드 도입(2차)	클라우드 도입(3차) 재해복구
	구분	'23년(1단계)	'24년(2단계)	'25년(3단계)													
	SW 개발	국가주소정보시스템(1차)	국가주소정보시스템(2차) 주소지능정보 및 광장(1차)	주소지능정보 및 광장(1차) 스마트 KAIS 구축													
	데이터	데이터 통합(1차)	데이터 통합(2차)	데이터 통합(3차)													
인프라	클라우드 도입(1차)	클라우드 도입(2차)	클라우드 도입(3차) 재해복구														
③ 신기술 적용	한국형 주소신경망, AI, 빅데이터, QR코드 기술 적용																
④ 시스템 연계 강화	범정부적 시스템 연계 확대 및 맞춤형 데이터 제공 추진																

⑥ 주소기반 산업 창출

① 국내·외 표준	국제표준화기구(ISO), 민간기구(OGC, ITU, IEEE)의 주소 표준에 한국 주소체계 반영
② 국제협력, 해외진출	K-주소 해외 진출 수요국 조사 및 아프리카 2개국 (에티오피아·탄자니아) 주소정보 협업 체계 마련
③ 산업모델 개발·확산	실내 위치안내, 사물인터넷, 모빌리티 운영, 생활·행정서비스 혁신, 주소체계 고도화 분야 산업모델 개발·확산
④ 산업 지원	주소정보산업 동향 작성, 컨퍼런스 개최, 산업 아이디어 공모전 및 우수기관 발굴 등
⑤ 통계 작성	주소정보 산업통계, 일반통계조사 등 시범 실시

축축한 주소로

편리하고 안전한 생활



산악 등 긴급구조



비닐하우스 배송



인적 드문 도로 긴급구조



푸드트럭 위치 검색

첨단기술과 주소정보의 융합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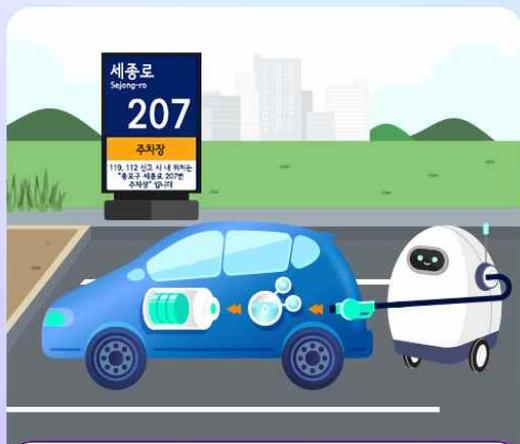
신산업 창출



주소기반 드론 배송



주소기반 자율주행배송



자율주행로봇 충전



주소기반 실내네비게이션